

뉴스홈 | 최신기사

## 프로배구 남자부, 코로나 여파로 PS 축소...정규리그 3월5일 재개(종합)

송고시간 | 2022-02-24 13:35

요약 댓글 가 구독

하남직 기자  
기자 페이지

플레이오프 단판 대결-챔피언결정전은 3전 2승제 유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에서 관계자가 세트가 끝난 후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2022 포스트시즌(PS)을 단축해서 치른다.

남자부 정규리그 재개일은 또 한 번 밀려, 3월 5일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삼성화재에서 3명의 선수가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 (엔트리에 17명을 등록한) 삼성화재는 리그 정상 운영 기준인 12명의 선수 엔트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남자부 추가 확진 선수의 코로나19 검체 채취일인 23일부터 열흘 뒤인 3월 4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하고, 3월 5일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그 중단 기간이 14일을 초과해 잔여 시즌 경기 일을 축소해야 하는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무위원회 사전 논의를 통해 정규리그 경기 수를 유지하되 포스트시즌 일정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는 연쇄적으로 남자부 구단을 공격하고 있다.

일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KOVO는 '2개 구단 이상 출전 가능 선수가 12명 미만이면 리그를 중단

1010회  
모토 당첨결과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하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가족 찾기 사연 보러가기



한다'는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15일부터 24일까지 남자부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KOVO는 25일 리그 재개를 준비하며 새 일정표도 공개했지만,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개일을 28일로 또 미뤘다.

여기에 삼성화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28일 재개도 불가능해졌다.

리그 중단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18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바꾼 배구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KOVO는 4-6라운드에 정규리그를 중단할 경우 운영 가이드라인을 코로나19 매뉴얼에 담았다.

중단 기간이 2주 미만이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잔여 경기 수를 유지하고, 2-4주 중단하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 4주 이상 중단되면 리그를 조기에 종료한다.

남자부 7개 구단에서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5개 구단에서는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규리그 중단일이 '14일'을 넘겼다.

KOVO는 지난 21일 남녀 14개 구단 사무국장과 화상 긴급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리그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논의했다.

KOVO와 각 구단은 정규리그는 되도록 모두 소화하고, 포스트시즌 일정부터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판 2승제인 플레이오프를 단판으로 하고, 챔피언결정전을 5판 3승제에서 3판 2승제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 01:59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장충체육관 방역 시스템

[연합뉴스 자료사진]

V리그는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에 코로나19 여파로 리그를 조기 종료하거나, 일시 중단했다.

2019-2020시즌에는 6라운드 초반,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리그를 중단하고 5라운드까지의 결과로 정규리그 순위를 정했다. 포스트시즌은 열지 못했다.

2020-2021시즌에는 1월 2일과 3일, 남녀부 4경기를 연기했고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 동안 남자부 경기를 중단했다. 이후 리그를 재개해 포스트시즌까지 완주했다.

이번 시즌 여자부는 열흘 동안 정규리그를 중단했다가 21일에 재개했다. 추가로 리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

반면 남자부는 재개일이 24일에서 28일로, 다시 3월 5일로 미뤄지면서 '일정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에서 포스트시즌이 열리지 않은 건, 2020-2021시즌 단 한 번뿐이다.

포스트시즌을 치른 시즌에는 모두 플레이오프 5판 3승제 또는 3판 2승제, 챔피언결정전은 5판 3승제 혹은 7판 4승제로 열렸다.

이번 시즌에는 'V리그 역사상 가장 짧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이 열릴 전망이다.

KOVO는 "자세한 리그 일정은 재편성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며 "연맹과 구단은 리그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ks79@yna.co.kr

#### 🔗 관련기사

'11년만의 통합우승' 노리는 현대건설...불안 요소는 '도로공사'  
'체력난' 현대건설, 3월 1일 도로공사 잡고 안방서 1위 확정할까  
삼성화재도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남자부 PS 축소 전망  
코로나19로 텅 빈 관중석...여자배구, 126일 만에 무관중 경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3:35 송고

#프로배구 #KOVO #코로나19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44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돌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사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상기홍 [편집인] 조재희  
Yonhapnews